

석유기업, 국제유가 급등 “주범”

푸틴 총리, 가격담합 의혹 제기 … 세금감면 혜택 철폐 주장도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석유기업들만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 급등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석유기업들을 향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5월5일 세계 최대 산유국 러시아마저 에너지 부족으로 고전하자 “석유기업들이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총리는 이고르 세친 에너지 담당 부총리가 최근 석유기업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 원인을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부족 탓으로 돌린 것을 질타했다.

러시아 정부는 석유기업들이 석유 수출물량을 내수용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4월 말부터 휘발유 수출 관세를 44% 인상했다.

세친 부총리는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 정제유에 대한 수출관세를 징벌적 수준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유류세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4월 넷째 주 러시아의 휘발유 가격은 2.8% 인상돼 14주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러시아 전문가들은 에너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2월 푸틴이 석유기업들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과 고급 정제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정유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을 꼽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석유기업들의 가격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유가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진 반면 정작 세계 주요 정유기업들의 1/4분기 순이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xonMobil은 1/4분기 순이익이 106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9%, Oxidental은 46%, Royal Dutch/Shell은 30% 증가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석유기업들의 가격 밀약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4월30일 라디오 연설에서 석유기업들이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만큼 석유·가스 생산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40억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06>